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⑲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찾아라

광주시가 도심야경과 숨겨진 광주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등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사진은 광주천 야경과 지난해 충장로 축제가 열린 충장로 거리(아래)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심야경·재래시장도 빼어난 관광상품"

광주시, 체험형·쇼핑형·야간 순례 코스 관광자원 발굴 나서

'숨어있는 광주의 관광자원을 찾아라'

'2008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광주의 비경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5개구 차치구 관광 업무 담당자와 광주시 관광협회 및 음식업협회, 농업기술센터 농업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우선 부족한 심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도심 야간 경관, 심야 공연장을 발굴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지역 경제와 연계하기 위해 전문쇼핑 매장, 재래시장 등을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조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 곳곳에 있는 빌딩 스카이 라운지와 사직공원, 무등산 팔각정 등 광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를 '시내 경관 조망 포인트'로 지정키로 했다.

관광객이 광주에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체험형 관광자원으로는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금곡마을, 광주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아자동차 공장 등이 발굴대상으로 꼽혔다.

예향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평촌 도예공방 등을 체험형 관광 코스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쇼핑형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대인, 남광주 시장 등 광주시내 17개 재래시장과 대형 쇼핑몰, 지역 특산품 매장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키로 했다.

야간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충장로 밤거리, 무등산 전망대 등을 야간 순례 코스로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음식업협회 등은 관광객들을 위해 아침식사가 가능한 식당과 저렴하고 맛있는 별미집을 발굴하기 위해 상무지구, 옛 전남도청 일대, 무등산권 인근에서 조사활동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각 동 관광업무 담당자, 주민자치센터, 향토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신규 관광자원'을 추천받기로 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새로운 관광자원을 추천받아 6월 중순께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 2차회의'를 개최한 뒤 광주시에서 발간하는 관광 홍보물에 새 관광지를 수록하는 등 홍보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다.

또 정기적으로 새로 발굴한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을 점검한 뒤 향후 관광자원 개발·육성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은 "새롭게 발굴한 관광자원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광주의 또다른 멋과 맛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광주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日 관광객 잡아라

오늘부터 나흘간 후쿠오카 등서
광주시 두번째 세일즈콜 마케팅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주요 도시에 대한 두 번째 세일즈콜(Sales Call)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등을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광간담회를 갖고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관광객 유치활동을 편다.

일본의 주요 여행사를 찾아 다니며 직접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세일즈 콜은 광주지역 아웃바운드(Outbound : 한국인의 외국 관광) 여행사의 주요 송출시장인 후쿠오카를 타깃으로 인바운드(Inbound : 외국인의 한국관광) 관광객을 창출하기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들의 신규 광주 관광상품 개발과 상품판매 촉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번 세일즈콜에서 광주권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자원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다양한 음식문화 및 축제행사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비엔날레, 김치대축제, 정율성국제음악회, 임방울국악제, 국제광산업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와 전남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만 갈대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테마관광코스도 소개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나흘간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 등을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간담회와 관광객 유치활동 등을 벌인 바 있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관광설명회와 해외 언론사·관광전문지·전담여행사 팸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히로시마·오이타서 '전남 주간' 행사
5일간 왕인 유적·보성 다원 등 홍보

전남도는 '2008 한일 관광교류의 해'와 '광주 전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일본 히로시마, 오이타에서 26~30일 5일동안 '전남주간' 행사를 갖고 보성 다원, 영암 왕인박사 유적 등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남주간' 행사에는 일본내 여행사 관계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상품 설명회에선 일본의 유력 여행사인 '한큐 교통사'와 광주전남 방문의 해 전남도 상품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일본 규슈지역 관광객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뉴카메리아 크루즈 여행상품', '백제문화탐방 상품' 등 현재 일본에서 판매중인 대표 관광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일대일 마케팅을 전개한다. 이 외 관광사진 설명회, 난타 공연 등도 마련된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 무안국제공항과 히로시마·오이타 공항간 전세기 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본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